

협회소식 / 92

건축계소식 / 94

해외공모전 / 98

현상설계경기 / 104

계획작품 / 113

게시판 / 11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8

신입회원 / 120

97년도 건축사지 총목차 / 122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개최

「'98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유보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 변경
 협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8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13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
 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98년도 제1회 이사회

〈 부의사항 〉

- 제1호의안 : '98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일자 및 장소 변경의 건

- 당초 오는 4월말 개최기로 된 '98전
 국건축사대회 개최(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현 국가경제의 어려움
 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함. 단, 개최시
 기 및 방법,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에
 서 재검토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
 인건비 기준변경(안) 승인의 건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26조 규
 정에 의거 1998년도 건축사 및 건
 축사보의 인건비 기준액을 엔지니어
 링사업 노임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원안대로
 승인함. 단, 시행일자는 98년 1월 1
 일자로 소급적용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
 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협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사무기구의 전문화를 목표로 직제
 및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현 1실1처4부12과1연구
 소 체제의 본회 기구조직을 2본부
 (기획운영/사업관리) 4실(기획조정/
 건축행정/정보관리/시험관리) 9팀
 (기획/홍보·편찬/총무/기획운영회
 계/기술·법제/회원지원/경력·등
 록관리/정보·전산/사업관리회계)
 1연구소(건축연구소) 1교육원(교육
 연구원)체제로 개편하고 직원정원은
 현 79명에서 68명(사무기구 60명,
 건축연구소 7명, 건축교육원 1명)으
 로 조정)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

(단위 : 원)

구 분	직접인건비		인상률 (%)	학력 및 경력의 기준			비 고
	현 행	변 경		학 사	전문대졸	공 고졸	
건 축 사	153,805	186,816	21.5	-	-	-	기 술 사
건축사보(고급)	111,484	117,410	5.3	10년이상	12년이상	14년이상	고급기술자
건축사보(중급)	90,147	97,488	8.1	5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14년미만	중급기술자
건축사보(초급)	63,872	69,405	8.6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9년미만	초급기술자
보 조 원	55,263	60,249	9.0	-	5년미만	7년미만	중급기능사

- 제4호의안 : 직원 직급구분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사무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일반직의 경우 1급급 직책인 처·실·국장을 본부장/국장으로, 현 1급을 직책인 국장/부장을 국장/실장/부장으로 직급을 각각 구분하여 조정하고 일반직 2급 과장이하와 기능직, 연구직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직원보직 변경 승인의 건
 - 사무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규정 제19조에 의거한 직원 보직 변경을 회장 및 김무언 부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직제 및 사무기구가 본부장 중심제로 개편됨에 따라 회장 결재권한의 일부를 본부장 중심으로 하향조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 6~7단계의 결재체계를 회장 - 본부장 - (실장) - 팀장 - 팀원의 4~5단계 결재체제로 간소화 함)

신년 교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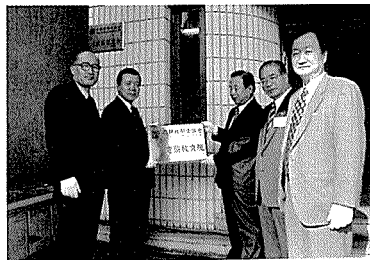
희망찬 새해출발 다짐후
'건축교육원 현판식' 가져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본협회 임원들이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98년도 신년 교례회」를 갖고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비록 경제난으로 협회는 물론 회원사들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원 모두가 힘을 합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협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난관을 헤쳐나가자고 다짐했다.

또 임원들은 신년교례후 협회 회관 1층 로비에서 올해 새로 개원하는 '건축교육원' 현판식을 가졌다.



신년교례회 광경



건축교육원 현판식 광경(좌로부터 박경환 상근부회장, 김영수 회장, 건설교통부 윤준섭 건축심의관, 이세훈 부회장, 김무언 부회장)

서울건축사회,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시행

1월말 현재 서울 회원 1천7백여명 지역감리사무소 가입

지난 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걸쳐 소형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 분리제도가 시행되었다. 4층 이하, 1천㎡이하의 소형건축물에 한해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맡는 이 제도는 지난해 서울시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 통과된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의 공사감리 운영지침 및 운영세칙'에 따른 것으로 시행개시년도에 한해 지역건축사회 소속의 회원 누구나 해당 지역감리사무소에 가입해 새제도에 의거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에따라 지난 1월말 현재 각 지역감리

사무소에 가입한 서울회원은 총1천 7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설계 및 감리계약분(98년 2월 1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소속 지역건축사회로 사전수탁신고하는 경우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시행일 이후 3개월까지 (98년 4월 30일)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시작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담은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

우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작년 10월 14일 개통하여 2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지난 1월5일부터 정식 개설됐다. 협회소개와 최신정보, 공개강좌·계시판, 자료실 및 관련사이트 등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는 접속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내려받거나 자신의 자료를 게재할 수도 있으며 특히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 각종 교육기관 등 관련 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협회는 앞으로 각종 공지사항이나 건축자재정보, 건축관련 법령정보 등 더욱 다양한 내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주소는 <http://www.kira.or.kr>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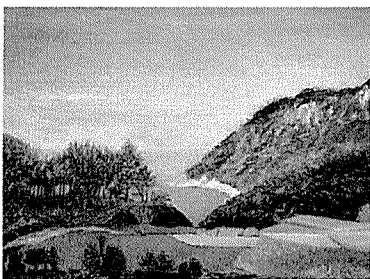
제7회 부산건축사화우회展 열려

부산건축사회 소속 미술동호인 작품 전시

부산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의 미술동호회 임인 부산건축사화우회(회장 김종문)가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전시실 '에당'에서 7번째 회원작품전을 개최했다.

지난 8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시회를 갖고 작품집을 발간해온 부산건축사화우회는 현재 부산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22명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도 회원들이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히 그려온 유화, 수채화 등의 미술작품 19점을 선보였다.

화우회 입회를 희망하는 건축사회원은 전화 051-552-2023 또는 051-809-6969로 문의하면 된다.



허경원회원작 "홍포풍경"



안광모회원작 "수향"

건축계소식 archi-net

삼우설계, 세계 14위 설계사무소에 선정돼

영국 WA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건축설계사무소' 중 상위 랭크

삼우설계가 국내 건축사사무소로는 유일하게 영국의 유명 건축전문지인 World Architecture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건축사사무소에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WA誌는 지난 98년 1월호 특집에서 지난해의 매출실적과 설계조직원 등을 분석한 자체조사자료를 근거로 각국의 건축설계사무소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삼우설계가 세계 14위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선정됐다.

국내업체가 세계 500대 설계사무소에 포함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세계 열네 번째라는 상위 랭킹은 이제 우리 건축설계업체도 세계 굴지의 설계사무소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가뜰이나 IMF로 얼어붙은 국내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더욱이 14위라는 순위는 일본의 건축사사무소가 10위권내에 3개업체나 랭크된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권중에서는 4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WA誌 선정 1위는 700명의 건축사를 거느린 미국의 HOK社(97년 매출액 1억6천만 달러)가 차지했으며 2위는 Gensler(미국), 3위는 日建設計, 4위는 가지마디자인(이상 일본), 5위는 NBBJ(미국)가 각각 선정됐다.

WA誌는 또 이번 조사에서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한 업체로 日本設計(일본)를 지목하였는데 이 업체는 1억 2천만달러의 전체매출액중 65%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誌 선정 세계 10대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사무소명/국적	건축사수(명)	97년매출액(\$)
1	HOK(미국)	700	1.4~1.6억
2	Gensler(미국)	685	1.6~1.8억
3	日建設計(일본)	684	1.8억+
4	가지마디자인(일본)	648	1.8억+
5	NBBJ(미국)	557	1.0~1.2억
6	RTKL(미국)	425	0.6~0.8억
7	SWECO AB(스웨덴)	420	1.8억+
8	Lockwood Greene(미국)	417	1.8억+
9	SOM(미국)	400	0.8~1.0억
10	日本設計(일본)	350	1.6~1.8억
14	삼우설계(한국)	319	1.0~1.2억

포스에이씨, 「고레기념관 국제현상설계」 2등 당선

지난 1월 13일 다카시 세네갈외무부에서 시상식 개최

지난 1월 13일 세네갈 다카시 세네갈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고레기념관 국제현상설계 시상식에서 (주)포스-에이.씨 심인보회원이 영예의 2등상을 수상했다. Abdou Diouf 대통령 등 세네갈정부 주요인사와 유네스코책임자, 각국 외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김인국 주세네갈대사관 부영사가 심인보회원을 대리해 세네갈 국회의장으로 부터 상장과 함께 상금 F.CFA15,000,000(미화 약 3만불) 및 기념상품을 수여받았다.

(주)포스-에이.씨는 지난해 세네갈 정부가 세계건축가연맹과 유네스코의 지원하에 다카시 마들레인만에 아프리카인들의